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3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무탄소 트럭 전환을 위한 규제 시행 발표

새로운 청정 트럭 규제에 따라 무탄소 차량 판매를 의무화하여 오염 완화 및 기후 변화 대응

유해 교통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기후법 의무사항 준수를 지원하고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청정 트럭 강화 규제(Advanced Clean Truck Rule, ACT)를 최종 채택하여 트럭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가스 완화를 위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주지사의 기후 주간\(Climate Week\) 발표](#)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규제는 단계별로 무탄소 트럭 판매 및 이용을 증대하여 뉴욕주가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에 따른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사회의 보건과 웰빙을 불공정하게 위협하고 있는 유해 배출가스를 감축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굳건한 청정에너지 전환 및 화석연료 의존을 없애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채택하는 규제를 통해 오염 및 배기가스를 줄이고 청정한 전기 트럭 노력을 시작하며 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에 고통을 주는 환경 불공정을 해결할 것입니다."

새로운 청정 트럭 강화(ACT) 규제는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무게가 8,500 파운드 이상인 차량을 제조하는 경우 뉴욕주에서 무탄소 차량(zero-emission vehicle, ZEV) 판매를 의무적으로 증대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를 통해 뉴욕은 가능한 경우 2045년까지 뉴욕에서 판매 또는 리스되거나 이미 판매 또는 리스된 중대형 차량을 등록할 경우 해당 차량이 예외없이 100% 무탄소 차량이 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신규 법안의 내용을 한층 강화합니다. ACT 규제는 또한 디젤 트럭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질소, 유해 오염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사회가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피해를 크게 줄일 것입니다.

Basil Seggos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우리는 CLCPA 의무 사항 실시를 비롯해 기후 변화를 촉진하는 배기가스 감축 노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규제를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기후 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주지사의 노력은 물론 주 전역의 중대형 트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크게 줄이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뉴욕은 2020년 7월 다주간 ZEV 공동 양해각서(Multi-State ZEV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주정부는 대형 픽업 트럭과 밴, 배송 트럭, 박스 트럭, 학교 및 대중 교통 버스, 장거리 배달 트럭을 포함한 중대형 전기차 시장을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오리건과 함께 ACT를 채택했습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니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운송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호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대담한 결정은 기후 변화 대응의 글로벌 선도자로서 뉴욕의 지위를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Doreen M. Harris NYSEDA 대표 및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경제 탈탄소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무탄소 트럭 규제가 실시되어 매우 기쁩니다. 민간 부문, 지방 지역사회, 소비자와 함께,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CT 채택은 뉴욕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을 85 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뉴욕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 의무 조항 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는 현재 중대형 차량 제조사에서 판매 중인 중대형 ZEV 차량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CT는 장기적인 차량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수소 충전 등 중대형 ZEV 충전 인프라를 마련하여 규제적 확실성을 확보합니다.

시행연도인 2025년부터 적용 가능한 제조사는 매년 뉴욕에서 판매한 중대형 차량의 총 수를 기준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ZEV 및 저탄소 차량(near zero emission vehicle, NZEV) 판매로 인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적자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ZEV 및 NZEV 크레딧은 차량 제조사가 발행, 저축, 교환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뉴욕에서 중대형 ZEV 판매가 계속되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판매 규제는 2035년까지 매년 늘어납니다.

규제의 전체 내용은

<https://www.dec.ny.gov/regulations/propregulations.html#rec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부문의 무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는 이미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New York Truck Voucher Incentive Program), 뉴욕시 청정 트럭 프로그램(New York City Clean Trucks Program), 유틸리티 기반 차량 평가 서비스, 1,500만 달러 규모의 중대형 메이크 레디 파일럿(Make-Ready Pilot) 프로그램, 2,400만 달러 규모의 전기 트럭 및 버스 챌린지 프라이즈(Electric Truck and Bus Challenge Prize) 공모전 등 무탄소 중대형 트럭 전환 가속화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 기관은 연방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을 통해 연방 자금을 확보하여 소외된 지역사회 및 외곽 지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뉴욕주 중대형 ZEV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DEC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EDA)은 기타 주정부 기관이 최근 제정된 법안에 따른 무탄소 차량 시장 개발 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당 노력은 2023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며, 2025년 전까지 판매된 차량은 DEC의 ACT 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는 일회성 대규모 플릿 보고 의무 사항 역시 마련합니다. 적용 대상인 중대형 차량 플릿은 2023년 4월 1일까지 D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향후 무탄소 중대형 차량 판매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사용됩니다.

Eddie Bautista 뉴욕시 환경 정의 연합(New York City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발표는 오랫동안 트럭 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아프리카계 및 아시안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입니다. 무탄소 트럭으로의 전환은 불공정하게 소외되어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겪어 온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대기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arris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청정 차량 연료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트럭은 고속도로와 물류 허브 인근에 위치한 유색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특히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ACT 규제는 중요합니다. ACT 규제는 디젤 장비 교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인센티브, 환경정의 지역사회에서 배출가스 감축 조치 의무화 등 기타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Julie Tighe 뉴욕 환경 보존을 위한 유권자 모임(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송 부문은 뉴욕주 최대의 온실 가스 배출원입니다. 청정 트럭 강화(ACT) 규제는 뉴욕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차량 중 청정 무탄소 차량(ZEV) 비중을 향후 15년 동안 늘려 환경 정의 지역사회에서 화석연료로 인한 공기 오염을 줄입니다. 뉴욕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노력은 뉴욕주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려는 노력이며, ACT 채택은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올해 중요한 정책을 채택해주신 Hochul 주지사, Seggos 커미셔너, DEC에 감사드립니다."

Peter M. Iwanowicz 인바이론멘탈 애드버킷 뉴욕(Environmental Advocates NY)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최종 채택은 모든 뉴욕 주민이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디젤 트럭 운행이 많은 지역에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의 질병과 이른 사망에 기여한 트럭 오염을 줄이기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정 에너지 연합 뉴욕 지부(Alliance for Clean Energy New York)의 Anne Reynold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트럭 규제 시행과 함께 뉴욕은 청정 대기 확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규제 시행으로 이제 제조사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뉴욕은 청정 중대형 차량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의 기후 대응 계획의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법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02개에 대한 33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거의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